

배포 일시	2023. 2. 27.(월)		
담당 부서	도로국 도로정책과	책임자	과 장 한명희 (044-201-3875)
		담당자	팀 장 이종현 (044-201-3904)
		담당자	사무관 장인호 (044-201-4769)
보도일시	2023년 2월 28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27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“대심도 지하고속도로가 더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” -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추진 자문위원회 구성 · 운영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경인, 경부 등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‘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추진 자문위원회(이하 자문위원회)’를 구성·운영한다고 밝혔다.
- 자문위원회는 지하고속도로 계획, 설계 및 시공 등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, 지하고속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, 지하고속도로 설계지침 등 제도 개정안 등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.

[자문위원회 주요 검토사항]

-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계획, 설계 및 시공 등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
- 지하고속도로 운영 방안
- 지하 고속도로 안정성 강화방안
- 설계지침 등 제도 개정안 검토 등

- 자문위원회는 지하고속도로 관련한 각 분야의 학회 및 전문 기관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 높은 전문성을 갖춘 6개 분야* 42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였다.

* 지반, 터널, 도로교통, 방재, 소방, 심리·정신 분야의 총 6개 분야

《 자문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구성 》

(명)

총 위원수	지반	터널	도로·교통	방재	소방	심리·정신
42	9	9	6	7	6	5

- 특히, 대심도 장대(20Km 이상) 터널을 건설·운영해야 하는 지하고속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방재·소방 시설 기준 적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방재, 소방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하여,
- 지하고속도로 사용자 측면에서 장거리 주행에 따른 폐쇄감도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위해 심리학자, 의사(폐쇄공포, 공황장애 등) 등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.

□ 앞으로 자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「지하도로 설계지침*」 개정안에 대한 자문을 시작으로 수시로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**하여 운영할 계획이다.

* '22.12월 마련한 설계 지침으로 국토교통부 누리집(molit.go.kr)에 PDF 등재 완료

** 필요시 분야별 전문가 추가 섭외

□ 국토교통부 한명희 도로정책과장은 “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처음으로 대규모로 추진하는 대심도 고속도로 사업인 만큼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” 면서,

- “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” 라고 밝혔다.

